

# 의궤 반차도 디지털화의 체계서지학적 연구와 현대적 활용

## Systematic Bibliographic Study on Uigwe Banchado Digitization and Modern Application

김다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dlsn7@skku.edu

Da-You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본 연구는 반차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이다. 반차도란 의궤 안에 담긴 그림으로 왕실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기록해놓고 예법에 맞게 이를 따르고자 왕실의 각종의식과 행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조선왕조의궤는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록유산들의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여러 곳이고 각각 세부 분류 방식이나 열람 형식 등이 달라 이용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록유산들 중 의궤 반차도를 주제로 디지털화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반차도 디지털화의 장점은 일반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콘텐츠의 개발, 재생산을 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활발한 접근과 활용을 유도하여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고 동시에 역사를 후대에 잘 전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반차도의 주요 소장처들이 진행한 반차도 디지털화의 현황을 알아보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용자 중심의 비교를 통해 현황과 개선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서론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로서 선조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이 기록유산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5년부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자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유산들의 정보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며 각각 세부 분류 방식이나 열람 형식 등이 달라 이용자들의 이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기록유산들 중 의궤 반차도를 주

제로 디지털화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반차도를 선정한 이유는 고서들이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어 일반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반해 반차도는 이미지이므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통 글로써 작성되는 문서들에 반해 의궤는 반차도라는 도식화된 이미지를 덧붙여,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점이 다른 도서들과 비교했을 때 의궤 반차도가 시각자료로써 이용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점이다.

반차도의 디지털화는 현재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소장처에서 운영하는 반차도 디지털 아카이브

들은 서지정보, 분류법, 정보 제공 형식 등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비교를 통해 반차도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서지정보와 의례분류법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와 아카이브의 목적인 정보 공개와 활용 면에서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 2. 반차도 디지털화의 서지정보

### 2.1 분석

대표적인 소장처들의 디지털화 현황을 살펴보면 규장각에 의례 2,940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원문자료검색을 통해 온라인에서 129종의 반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각 홈페이지에서는 273건의 의례자료와 6건의 반차도가 DB화 되어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외규장각 의례 홈페이지에는 297권의 의례와 58건의 반차도를 열람할 수 있다.

서지정보를 살펴보면 규장각의 경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청구기호와 반차도의 주제, 출판년도, 콘텐츠와 서명(반차도명)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콘텐츠는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반차도의 디지털화 자료로 클릭하면 해당 반차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장서각은 반차도명과 제작년도를 제공하고 있어 가장 간단한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규장각과 마찬가지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유물번호와 서명(반차도명), 제작시기, 분류(주제별, 오례별<sup>1)</sup>)를 서지정보로 제공하여 세 곳 중 가장 많은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규장각과 비교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규장각 모두 오례별로 반차도를 분류하여 서지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례별과 주제별 두 가지로 나누어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 2.2 제안

반차도 디지털화를 오례별로 분류하여 서지정보를 제공한 규장각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오례(길례<sup>2)</sup>, 가례, 군례<sup>3)</sup>, 흥례, 빈례<sup>4)</sup>) 중 혼례와 관련된 가례와 상사와 관련된 흥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길례, 군례, 빈례를 다루는 반차도의 디지털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서각은 반차도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디지털화된 반차도가 6건만 등록되어 있어 아직 분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차도의 이름이 모두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적더라도 해당 반차도가 어떤 내용의 반차도인지 주제별이나 오례별로 서지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반차도 디지털화의 분류법

### 3.1 분석

규장각의 경우 오례별로 분류하였다. 오례별 분류는 조선시대 의례 규범인 국조오례의 체제에 따라 전체 의례를 길례, 가례, 흥례, 빈례, 군례의 오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그 형태나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나눈 것이다. 규장각 반차도 디지털화의 경우 가례 63건, 흥례 66건의 반차도가 등록되어 있어 오례 중 가례와

1) 국조오례의 체제에 따라 전체 의례를 길례, 가례, 흥례, 빈례, 군례의 오례에 따라 분류

2) 제사 관련 의식

3) 군사 관련 의식

4) 외국 사신 관련 의식

흥례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 내용에 따라 가례는 책례, 존송, 행행, 연례, 어진, 대례, 가례로 다시 나누고, 흥례는 천원, 천릉, 국장, 부묘, 예장, 부궁묘로 다시 나누어 함께 표기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주제별, 오례별, 왕대별로 분류를 하였고 전체보기와 분류별보기가 모두 가능하여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주제별 분류는 다시 왕실일생과 왕실사업으로 나누었는데 왕실일생 페이지에서는 왕실 구성원의 책례, 관례, 혼례, 장례와 같은 통과의례와 관련된 내용의 반차도를 왕실사업 페이지에서는 능, 석물 등을 개수하는 내용의 반차도를 열람할 수 있다. 오례별 분류에서는 규장각의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가례와 흥례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타 분류에 사당을 영건하는 내용의 반차도 1점이 등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설명에 따르면 외규장각 의례에는 빈례, 군례에 해당하는 의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왕대별 분류에서는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등 9명의 왕대별 반차도를 볼 수 있다.

### 3.2 제안

규장각의 반차도 디지털화의 분류법은 서지 정보로만 제공될 뿐 분류별 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원하는 오례의 반차도를 찾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씩 넘겨가며 찾아야 한다. 이로 인해 원하는 오례의 반차도로의 접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오례별뿐만 아니라 주제별, 왕대별 분류 보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세 아카이브 중 가장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가례와 흥례를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때 존송, 부묘, 부궁 등 일반 이용자들에게 생소한 단어를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4. 반차도 디지털화의 정보제공

### 4.1 분석

장서각을 살펴보면 등록된 반차도 자료는 6건으로, 직책별과 복식/의물별로 검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직책별 검색 기준에서 각수를 선택하여 살펴보면 우선 각수가 등장하는 반차도의 이름과 그 밑으로 인물상, 직책명, 복식명을 검색결과로 볼 수 있다. 숙종인경왕후인현왕후부묘도감의례의 효녕전반차도를 예를 들어보면 인물상에 효녕전반차도에 등장하는 각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체 효녕전반차도에서 해당 각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복식/의물별 검색도 직책별 검색과 같은 원리로 복식과 의물에 해당하는 단어를 목록에서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서각의 경우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하단에 인물상, 직책명, 복식명을 보여주는 데 반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마우스오버의 형태로 매우 빠르게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장서각과 다른 점은 복식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물의 경우 그 인물의 직책을 사물의 경우 그 사물의 이름과 용도를 알 수 있다. 또 세 아카이브 중 유일하게 반차도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고 비교적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차도 자체에 대한 정보 접근성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4.2 제안

장서각은 검색결과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조

선왕조실록사전과 링크로 연결되어 해당 단어들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옛 직책명과 복식명이 생소할 일반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반차도 디지털화의 장점을 잘 살렸다고 보인다. 다만 개선할 점은 모든 단어에 링크가 연결된 것은 아니어서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또 반차도에 대한 상세설명도 추가되어야 한다. 장서각에서 반차도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궤 아카이브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하지만 반차도가 그림이라는 점에서 일반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의궤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반차도 아카이브에서도 해설을 제공해야 이용 편의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의궤 반차도의 디지털화에 대해 서지정보를 확인하고 디지털 반차도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잘 분류되어 있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인 것으로 보인다. 주제별, 오례별, 왕대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오례별로만 분류한 규장각에 비해 이용자의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소장 반차도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보기형식으로 주제별, 오례별, 왕대별로 분류되어있지만 각각 카테고리의 반차도들을 불러오면 세 가지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별 보기를 선택하여 왕실 일생 중 가례를 선택하더라도 가례에 해당하는 반차도들의 왕대별 제작시기와 오례 중에

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지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오례별로만 분류하고 있는 규장각은 ‘가례’의 경우 ‘혼례와 관련된 의식’ ‘흉례’의 경우 ‘상(喪)·장(葬)에 관한 의식’ 등으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용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가례와 흉례를 의식에 따라 더 자세히 분류하고 있는데 존송, 연례, 대례, 가례, 친원, 친릉 등 역시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로 되어 있어 직관적인 단어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요하다.

정보 제공 면에서는 장서각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았다. 장서각의 반차도 디지털화는 6건으로 수는 가장 적었지만 디지털화된 반차도에서 해당 이미지 정보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은 물론 ‘반차도 직책/복식정보 검색’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책과 복식에 관련된 단어로도 해당 복식명, 직책명, 인물이미지 정보를 모두 불러 올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색인어 기능을 제공하고 특히 마우스오버 형식으로 반차도 상에 나타난 인물의 직책이나 사물의 이름을 바로 제공하는 점에서 디지털화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 반면 규장각의 경우 가장 많은 반차도 디지털화를 진행하였지만 이미지만 제공하고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이용자의 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차도의 디지털화는 그 목적이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 정보공개와 활용에도 있는 만큼 얼마나 일반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구성이. (2012). 『산릉도감의궤를 통해 본 17

- 세기 정자각의 원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강이관. (2017). 『<화성 원행 반차도>에 나타난 선묘(線描)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 김리안. (2013). 『정보 디자인 관점으로 본 『화성행반차도(華城行班次圖)』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메타디자인 학부 시각디자인.
- 김아람. (2013). 『복식 고증을 통한 복은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 노선. (2014) 『조선왕조실록 분석을 위한 인물 중심의 데이터 시각화』.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 반숙희. (2016).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치 변화 : 『조선왕조실록』의 디지털화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과.
- 박지은. (2016). 『2009개정 중학교 음악교육 과정에 나타난 대취타에 관한 연구 :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에 출현한 대취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연. (2014). 『화성원행을묘정리의궤 반차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 이일수. (2016). 『한국 유교책판의 활용방안 연구 : 기록유산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문화기술대학원 창의콘텐츠학과.
- 이지은. (2013).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혜린. (2017). 『효명세자장례도감의궤』 발인 반차도 복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정환석. (2009). 『한국 기록문화유산 정보시각화 연구 방안 : 천문류초, 천상열차분야지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 조미나. (2012). 『조선왕조 가례도감의궤에 나타난 궁녀의 직무에 따른 복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 최성미. (2012). 『명성황후 가례와 국장도감의궤 반차도의 기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 홍명화. (2011). 『외규장각 의궤류의 서지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참고사이트]**

-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http://www.museum.go.kr/uigwe>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